

제임스 S. 스피겔 박사, 기독교 윤리, 세션 1 8, 동물 권리

© 2024 Jim Spiegel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기독교 윤리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제임스 스피겔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8, 동물 권리입니다.

좋아요, 여기서 우리의 마지막 이슈는 동물 권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물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있다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동물에 대해 어떤 종류의 의무나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까? 동물 권리 문제와 관련된 가장 논란이 많은 관행은 공장식 농장과 생물의학 연구와 관련된 것입니다. 공장식 농장 통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700억 마리의 농장 동물이 소비를 위해 사육됩니다.

미국에서 농장 동물의 99%가 공장식 농장에서 사육됩니다. 전 세계 항생제의 대부분은 농장 동물에게 먹이로 제공됩니다. 공장식 농장 잔혹 행위에 대한 사실은 미국인의 94%가 소비를 위해 사육된 동물은 고통받아서 안 된다고 믿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국인이 고기를 먹는 정도를 감안하면 놀라울 정도로 높은 숫자일 수 있습니다. 공장식 농장은 미국에서 물 낭비의 주요 원인입니다. 미국에서 약 2억 6천만 에이커의 숲이 농장 동물의 사료를 생산하기 위해 벌채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농업 배출량의 40%가 공장식 농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젖소는 매일 37억 갤런의 배설물을 생산하는데, 이는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 중 다수는 환경적으로 두드러집니다.

현대 동물 권리 운동의 아버지는 피터 싱어입니다. 그는 1975년 저서 *Animal Liberation*에서 동물 권리에 대한 주장을 합니다. 그는 독자들에게 공장식 농장에 대한 사실을 알리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의 주장은 모든 동물은 동등한 배려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동물은 동등한 배려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는 평등이 도덕적인 사상이라고 지적합니다.

그것은 명백해 보이는 사실의 주장이 아닙니다. 사실, 두 사람이 육체적 또는 지적 관점에서 정확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평등은 우리 모두가 사회에서 중요하고 의미 있는 가치와 이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이 사실의 주장이 아니라 도덕적인 생각이라고 지적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은 그들이 가진 능력에 달려서는 안 됩니다. 동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종차별주의를 비난해야 합니다. 그는 종차별주의라는 용어를 만들어냈는데, 이는 어떤 면에서 성차별주의나 인종차별주의와 비슷합니다. 이는 특정 종류의 편견이나 광신도에 유죄인 사람들을 태그하는 방식입니다.

그는 종차별주의를 자기 종 구성원의 이익에 대한 편견이나 편향된 태도와 다른 종 구성원의 이익에 대한 편향된 태도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편견을 유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종차별주의가 만연한 주된 이유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통제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 돼지, 닭, 그리고 다른 동물들을 통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높은 인지 기능을 가지고 있고 통제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동물들을 희생하고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이익을 선호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편에서 어떤 종류의 도덕적 특권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를 인용하여 “ 고통과 즐거움을 느끼는 능력 은 이익을 갖는 데 필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그리고 고통을 겪는다는 사실 때문에 고통을 겪을 수 있는 존재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이유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동물이 고통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이해관계를 갖는다. 그리고 이해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권리를 갖는다. 그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의 경계를 지능이나 합리성과 같은 다른 특성으로 표시하는 것은 임의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다른 존재에 대한 관심이 적절한 곳을 구분하는 방법으로 어떤 기준을 선택해야 할까? 그는 우리가 어떤 기준을 선택하든, 생명에 대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우리 종의 모든 구성원을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만약 우리가 특정 수준의 지능이 없다는 이유로 고등 포유류를 배제한다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특정 인간을 배제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정 고등 포유류, 고등 영장류가 나이 또는 인지 발달 장애가 있는 경우 발달 문제로 인해 일부 인간보다 더 지능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싱어는 우리가 가진 가장 좋은 기준은 고통을 겪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는 다음과 같은 반대 의견을 다룹니다. 만약 동물이 고통을 겪을 수 없다면 어떨까요? 만약 데카르트가 옳고, 동물은 기본적으로 기계이고, 의식이 없으며 고통을 겪을 수 있는 능력도 없다면 어떨까요? 싱어는 이에 대해 두 가지로 대답합니다.

우리는 동물이 고통을 겪을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말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면, 개나 고양이의 꼬리를 밟으면 으르렁거리거나 짹짹거릴 것입니다. 그것은 고통을 경험하고 부정적인 정신 상태를 갖는 것과 일치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생리적 유사성으로, 동물들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의 중추 신경계는 우리와

매우 비슷하고, 특히 포유류의 경우, 우리와 매우 비슷하게 고통과 쾌락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은 고통을 받을 수 있고, 쾌락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고통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동물이 도덕적 고려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과 같은 도덕적 고려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서 자신의 입장을 약간 미묘하게 표현합니다.

동물 권리의 또 다른 옹호자는 톰 리건으로, 그는 다른 종류의 주장을 합니다. 그것은 싱어의 주장처럼 공리주의적 추론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리건은 모든 동물이 기본적인 인식과 의식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등한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삶의 주체를 경험하고 있으며, 그것만으로도 그들이 특정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장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는 내재적 가치는 인간에게만 국한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면에서 다른 동물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삶의 경험 주체이기 때문에 동료 인간을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그것을 삶의 경험 주체인 다른 동물에게까지 확장하지 않을까요? 그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을 동등한 권리가 있으며 사물의 지위로 격하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여기서 제기될 수 있는 반대 의견은, 아니요, 오직 인간만이 필수적인 지능, 자율성,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 개 오스틴은 진짜 경험을 하고 고통과 쾌락을 느끼는 등 여러 가지를 느끼지만, 그녀는 진정으로 지적이지 않고, 특히 자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녀는 미리 정해진 목적이나 목표, 견해를 위해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추론할 수 없습니다.

이런 종류의 주장에 대한 리건의 반응은, 다시 한번, 싱어가 지적했듯이, 많은 인간, 예를 들어 유아와 정신 장애가 있는 성인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내재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유아뿐만 아니라 심각한 정신 장애가 있는 유아나 성인 인간에게까지 확대하려면, 동물에게도 확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리건은 내재적 가치를 지닌 모든 사람은 인간이든 아니든 동등하게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반론은 이것입니다. 왜 우리는 내재적 가치를 지닌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것은 리건이 결코 보여주지 않는 것이고, 저는 그가 모든 권리, 또는 이 경우 내재적 가치가 동등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는 피터 싱어와 더 비슷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저는 개나 고양이, 침팬지가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동물들이 인간과 동일한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생물의학 연구의 문제에서, 우리는 동물에 대한 생물의학 연구의 윤리는 어떨까요? 이것이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까요? 이에 반대하는 강력한 동물권 옹호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리건 과 싱어가 동물권에 대한 주장의 논리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이유로 이에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RG 프라이는 의학 연구에서 동물을 사용하는 것을 지지하며, 흥미롭게도 그는 권리 개념에 전혀 호소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옹호합니다. 그는 권리 개념이 문제가 많다고 믿습니다. 그의 주장은 삶의 질이라는 개념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는 미안합니다에 호소하며, 모든 도덕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이를 긍정할 수 있습니다. 그는 생물의 삶의 질이 도덕적 고려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지적합니다.

도덕적 지위는 생물이 경험적 주체인지, 경험의 질에 따라 생물의 삶을 잘 살거나 나쁘게 만들 수 있는 일련의 경험을 펼치는지에 달려 있다고 그는 말한다. 그는 삶의 가치는 질, 질은 풍부함, 능력이나 풍요로움의

풍부함의 함수라고 말한다. 그리고 동물의 삶은 특정한 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가치가 있지만, 정상적인 성인 인간의 삶과 같은 가치는 아니다.

저는 이것이 리건과 같은 사람이 받아들여야 할 일종의 자격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라이는 싱어가 제안한 이것이 종차별주의 라는 개념에 도전합니다 .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동물보다 더 가치 있는 경향이 있는 것은 인간 종에 속한다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특정한 삶의 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할 뿐입니다.

이제, 이것은 Fry의 관점과 관련하여 몇 가지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 왜냐하면 우리는 삶의 질이 같은 인간이 아닌 것에 대해 질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특정한 고차 인지 기능을 가진 우리와 같은 수준의 삶의 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Fry가 동물에 대한 실험과 마찬가지로 특정 인간 피험자에 대한 실험이 적절할 것이라고 실제로 인정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적어도 유대-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그의 관점을 부조리로 축소하는 일종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총알을 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그 공로를 돌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게 그가 생물의학 연구와 동물 실험에 대한 모든 문제에 취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그러니 Andrew Tardif, 이제 그의 채식주의의 주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는 채식주의에 대한 의무를 주장한다. 그는 신학적 논증을 사용하여 그렇게 한다 . 그는 음식을 위해 동물을 고의로 죽이는 것을 피하거나, 직접 죽이지 않더라도 동물을 사는 것을 피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지원 자살 의 맥락에서 이미 논의한 내용 , 즉 이중 효과의 원칙에 근거하여 이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맥락에서 토마스 히긴스라는 학자의 견해를 약간 인용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중 효과의 원칙에 따라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선을 위해 중대한 악을 허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타르디프가 말했듯이, 선이 문제의 악보다 더 크더라도, 인용하자면, 악의 효과 없이도 선의 효과가 확보될 수 있었다면 그 행위는 불법입니다. 이는 이중 효과의 원칙 내의 한 가지 규정과 관련이 있는데, 그것은 선을 이루는 수단이 악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좋은 효과를 얻는 수단으로 악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주장에서 존재의 위계라는 전체적인 관념에 호소하면서, 창조된 질서에는 무생물에서 시작하여 미시적인 유기체, 벌레와 곤충, 물고기,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 인간, 그리고 천사의 질서를 거쳐 신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큰 가치와 가치를 지닌 존재의 일종의 위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존재의 일종의 위계가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중세 시대에 훨씬 더 일반적으로 지지되었지만, 그는 오늘날 유대-기독교 전통에서 나온 사람들이 긍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동물보다 위계적으로 더 높고, 동물은 식물보다 더 높고, 식물은 무생물보다 더 높습니다. 가능하다면 우리는 이러한 가치의 위계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은 계층 구조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따라 각 유기체의 종류를 적절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은 파리를 때리거나 모기를 죽이는 것에 대해 두 번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개나 고양이, 심지어 새를 그냥 무심코 죽인다면 우리는 공포에 질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기에 계층 구조가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을 죽이려면, 알다시피, 젠장,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개미를 밟거나 파리를 때릴 때 우리는 결코 충분한 이유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존재의 위계에 대한 이러한 개념과 이중 효과의 원칙을 결합하면, 타르디프에 따르면, 사람이 동물 대신 식물을 죽임으로써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는, 식물보다 본질상 우월하기 때문에 동물을 죽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동물을 죽이는 것은 필요 이상의 폭력이 될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는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동물을 죽이는 것은 비례적 선의 조건을 위반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덜한 상품과 식물을 희생하여 달성할 수 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동물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타르디프는 그를 더 인용하여, 다른 모든 것이 동등하다면 채식주의의 식단으로 잘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채택할 의무가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택은 그의 삶과 건강에서 가장 큰 상품을 확보하고 악을 가장 적게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아이디어는 식물성 제품을 먹어서 동물성 제품을 먹어서 얻을 수 있는 것과 똑같은 건강과 웰빙을 삶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만약 당신이 완전 채식주의의 식단을 하고 고기를 먹지 않는다면, 당신은 동물 학대에 가담하거나 동물의 고통을 증가시키는 것을 피함으로써 많은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당신은 그렇지 않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잘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것은 채식주의의 식단이 실제로 더 건강하다는 추가적인 주장을 무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근거로 논쟁을 벌이고, 그는 실제로 여기서 이것의 영양적 차원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을 언급합니다. 이 주장을 전개하기 위해 영양에 대한 주장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는 적어도 채식주의의 식단은 잡식성, 즉 육식주의자의 식단만큼이나 영양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이 무엇이든 더 건강한 식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채식주의자가 되는 것은 건강상의 이유라고 일반적으로 가정합니다 . 저는 제가 잔인함이 없는 식단을 실천한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공장에서 사육된 고기를 피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람들에게 제가 일반적으로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말하면, 그들은 건강상의 이유로 고기를 먹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로?라고 말할 겁니다. 그들은 식단에서 고기를 피하거나 최소화하는 데 엄청난 건강상의

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아요, 그런 종류의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그의 주장을 위해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충분한 도덕적 주장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고려 사항은 가용성입니다. 우리 문화권에서는 대부분의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동물성 식품이 아닌 식품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년 내내 매우 건강한 채식 식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다른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그렇게 큰 걱정거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더 효율적이라고 들었습니다. 곡물, 야채, 과일을 먹는 것이 이 모든 곡물을 먹은 동물의 고기를 먹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이 곡물 중 많은 것이 실제로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특히 견과류와 기타 비동물성 제품은 많은 단백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끔 제기되는 몇 가지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쾌락에 대한 반대입니다.

고기는 맛있습니다. 고기를 씹는 느낌이 좋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크나 돼지고기, 돼지갈비, 아기 등갈비에서 얻는 맛은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먹는 것에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을 강조할 것입니다. 그것이 고기를 얻기 위해 동물을 죽이는 데 대한 적절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Tardif는 맛있는 고기 없는 음식이 많이 있고 고기를 먹는 즐거움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동물을 잔인하게 대하는 것이 그것을 정당화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반박합니다. 이러한 식물성 햄버거 대체품이 등장하면서, 저는 그의 주장이 특히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불가능한 워퍼의 열렬한 팬이고, 버거킹이나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받고 그렇게 말한 적은 없지만, 이게 진짜 워퍼와 얼마나 비슷한지 놀랍습니다. 차이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아마 몇 주에 한 번 정도는 먹을 거고, 불가능한 워퍼 버거를 먹을 거예요.

오늘 오후에 하나 사올 것 같아요. 사실, 배고프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가진 기술로 고기 대체품을 만들 수 있다는 건 정말 놀랍죠.

제 생각에는 진짜 고기와 똑같은 맛인데, 실제 붉은 고기에 있는 아질산염과 질산염이 전혀 없기 때문에 더 건강합니다. 어쨌든 고기를 먹는 데 훨씬 더 큰 즐거움이 있다 하더라도, 타르디프는 그것 때문에 동물을 죽일 만큼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반대 의견은 경제적 반대입니다.

모든 사람이 채식주의자가 된다면 경제적 격변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그들이 이 주장을 얼마나 진지하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끔은 그런 말을 듣습니다.

이에 대해 타르디프는 모든 사람이 채식주의자가 되더라도 갑자기 일어나야만 경제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한다. 내일 모든 사람이 갑자기 채식주의자가 되거나, 심지어 인구의 상당수가 채식주의자가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매우 점진적으로 일어날 것이고, 시장은 조정될 것이다.

이런 일이 이미 레스토랑과 식료품점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보세요. 그들은 채식주의 옵션을 제공하는 면에서 변화를 쫓는데, 이는 이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조정될 것이고, 점진적으로 일어날 것이므로 이로 인한 경제적 재앙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면, 글썄요, 사람들이 이 문제에 점점 더 민감해지고 그에 따라 식습관을 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동물 보호에 대한 성경적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는 어떤 종류의 고려 사항이 들어가야 할까요? 시작할 수 있는 한 가지 요점은 신성한 소유권과 관련이 있는데,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주 전체의 주인이며, 여기에는 지구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인간과 모든 언덕의 모든 동물, 모든 새와 모든 나무가 포함됩니다. 시편 50편에서 시편 기자가 말했듯이요.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다른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으며 자연의 어떤 측면에 대한 무례는 하나님에 대한 간접적인 무례입니다.

동물에 대한 잔인한 대우는 동물에 대한 무례일 뿐만 아니라 신에 대한 무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동물을 인도적으로 대우할 의무가 있습니다. 둘째, 동물을 대하는 것과 관련된 신성한 명령이 있는데, 간과하기 쉽습니다.

전통적으로는 강조되지 않았지만,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동물을 돌보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그 중 하나는 출애굽기 23장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안식일 휴식을 동물에게까지 확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소, 황소, 당나귀도 쉬어야 합니다. 신명기 25:4는 소가 곡식을 밟아내는 동안에는 망을 씌우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잠언 12:10은 의로운 자는 동물의 필요를 돌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의로운 사람이 하는 일이며, 그들은 동물을 돌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우리 뒷마당에 있는 닭장에 갈 때마다 그 구절을 생각합니다. 닭장에 있는 네 마리의 닭을 키우고 있고, 닭에게 굶은 자국을 주고 닭장 안쪽에서 밖으로 내보냅니다.

저도 이 점에서 정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매우 지능이 낮은 동물들의 걱정을 돌보면서요. 닭은 매우 멍청한 동물이고, 기발한 작은 짐승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능이 매우 낮더라도, 제 고양이와 개를 돌보듯이 그들을 돌보고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창조물을 돌보라는 문화적 명령인 성경적 명령을 이행하는 것의 일부일 뿐입니다. 하지만 동물을 돌보라는 성경의 구체적인

명령을 아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이미 다양한 완벽함의 측면에서 서로 다른 존재인 사상의 위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를 대하는 것의 적절성은 타르디프의 주장에서 말했듯이 위계에서 그 존재의 위치에 따라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동물에 대해 이중의 도덕적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동물에게 권리가 있다고 말할 정도까지는 가고 싶지 않더라도, 동물에 대해 제가 선언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너무 강한 용어 같습니다. 제 친구인 고인이 된 위대한 스티븐 웹과 같은 대부분의 동물 복지 신학자들은 이 주제에 대해 많은 글을 썼습니다.

앤드류 린제이와 다른 사람들은 언어 권리를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동물 복지, 동물 보호, 연민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그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동물에 대해 두 가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신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동물을 돌보는 것입니다. 동물은 신의 애완동물입니다.

그리고 사냥을 하려고 한다면, 고통과 괴로움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올바른 방법이 있습니다. 무책임한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얻은 고기를 먹을 거라면, 그렇게 많은 고통을 유발하는 시스템을 지원하는 것을 피하세요.

본질적으로 잔인하지 않은 동물성 제품과 가공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목형은 방목형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를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아예 고기를 먹지 않는 것. 그래서, 이것의 두 번째 부분은 동물을 의식이 있는 존재로서 욕구와 고통을 받을 수 있는 능력에 적합한 방식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다면,

그것은 아마도 우리의 구매와 먹는 행동에 약간의 조정을 의미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제 추천입니다. 동물 복지에 대한 진지한 고려입니다. 또한 공장식 농장에 대한 우리의 지원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재고하게 만들 것입니다.

공장식 농장에서 엄청난 수의 동물이 가공되고, 종종 또는 전형적으로 어느 정도의 잔혹함이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서커스. 이런 맥락에서 동물은 종종 고문스러운 방식으로 훈련됩니다.

서커스에서 수년간 행해졌던 일, 적어도 특정 맥락에서, 일종의 전형이죠. 예를 들어, 당나귀나 말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물속으로 떨어지고, 별다른 힘 없이 그렇게 하는 거죠. 아마 약간은 자극을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동물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훈련하는 데 무엇이 필요할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사용될 것은 전기 자극기일 것입니다. 동물에게 무섭겠지만 그저 물웅덩이에 뛰어드는 것뿐입니다.

감전되는 것보다는 낫죠. 하지만 오늘날에도 다양한 곳의 서커스에서, 모든 종류의 비자연스러운, 매우 비자연스러운, 눈으로 보기에 재밌는 모든 종류의 일을 하도록 훈련받은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가혹한 대우와 학대 덕분에 트레이너들이 그들에게 그런 스텐트를 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함정. 특히 모피를 위해 동물을 잡는 데 사용되는 함정은 종종 매우 잔인합니다. 함정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얼마나 자주 점검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법률이 있지만, 잘 시행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동물들은 잔인한 방법으로 갇혀 수 시간 또는 수 일 동안 고통받도록 내버려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물 연구 측면에서, 많은 동물들이 의심스러운 연구를 위해 고문을 당합니다. 뇌 손상 과 암을

연구하거나 수술 기법 측면에서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데 동물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의 일입니다.

그건 한 가지입니다. 하지만 화장품을 테스트하기 위해 동물을 대상으로 고통스럽고, 심지어 극도로 고통스러운 연구를 하는 것은, 토끼에게 일반적으로 하는 것처럼, 화장품을 눈에 넣고 토끼를 피할 수 없는 곳에 묶어 두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에 격렬하게 반응하지만, 이 화장품을 테스트할 때 눈의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제 말은, 화장품이에요. 이건 인간의 번영에 필수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 어떤 종류의 제품이 이런 종류의 것에 의존하는지 아닌지 살펴보는 게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제품에는 공장에서 사육한 것이 아니거나 방목으로 키운 것이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방목 닭의 달걀과 방목 닭 고기를 구매하게 되는데, 공장에서 사육한 달걀과는 대조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구매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뒷마당에서 닭이 낳은 달걀을 구매하는데, 가게에서 판매하는 달걀보다 맛이 훨씬 좋습니다.

따라서 풍미, 맛, 미적 차원에 대해 걱정된다면, 잔혹하지 않거나 인도적으로 키운 동물성 제품을 지지하는 또 다른 표식이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리소스가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Christian Vegetarian Association입니다.

동물을 위한 예수 사람들(Jesus People for Animals)도 있고, Every Living Thing 조직도 있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몇 년 전, 5년 전쯤에 초안된 성명서가 있는데, 제가 서명했고, 다른 많은 사람들도 서명했습니다.

동물 복지와 동물 대우의 윤리에 대한 체계적인 진술로서 제가 본 것 중 가장 균형 잡히고, 성경적이며, 합리적인 것입니다. 성경적 기독교 관점에서 본 것입니다. 좋은 내용입니다. 그럼,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여기서 마칩니다.

이것은 기독교 윤리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제임스 스피겔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8, 동물 권리입니다.